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35. 덴마크 국립 박물관 2

‘홀드모스 여인’을 뒤로 하고 나는 계속 나머지 전시관들을 살펴 보았다. 모두 소규모 전시였지만 내용은 알차고 흥미로웠다. 중세관에서는 이교도 토속 신앙 사회가 기독교로 개종해 가는 과정을 전시해 놓았는데 구경하는 내내 코펜하겐 시청 크리스토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는 토속 신앙 부족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사랑의 나무 밑에서 ‘팅’을 해 받아 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유익한 인물인가? 유익한 인물이라면 받아 들이자’ 하는 식으로 협상 과정을 거쳐 들어왔을 것이라고. 예수를 받아 들여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덴마크 중세의 엄숙하면서도 화려한 유물들이 직사각형 방을 가득 채웠고, 당시 왕관을 전시해 놓았는데 어딘가 신라 금관과 비슷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근대 전시관으로 건너가는 전시관 벽 한구석에 중세 기사 갑옷을 입혀 놓은 마네킹이 서 있었다. 철망으로 만든 갑옷 위에 철망 장갑까지 끼고 긴 칼을 앞에 짚고 있었다. 투구를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네킹이라도 중세 기사를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은 처음이라 발길을 멈추고 살펴 보았다. 이렇게 무거운 철망 옷을 입고, 게다가 무거운 칼까지 차고 어떻게 움직였을까? 나는 기사의 철망 옷이 신기해서 한 번 만져 봤으면 하는 마음이 불쑥 들어 마네킹 앞으로 더 가까이 갔다.

그 순간, 마네킹이 팔을 번쩍 들었다. “으악!” 나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마네킹은 앞으로 내민 팔을 흔들며 ‘헬로!’ 하고 인사까지 하는게 아닌가! 중세 기사로 분장한 사람이었다. 어찌나 놀랐는지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다. 기사는 너무 놀라지 마라는 몸짓을 하며 유머러스하게 어깨를 움찔했다. 그리고는 조금 진정이 된 내가 웃으며 멀어지자 다시 원래대로 칼을 앞에 짚고 근엄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 전시관 출구에 서서 그 기사가 또 무슨 짓을 하나 궁금해서 바라다 보았다. 아나나 다를까,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년 둘이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

다 보자 갑자기 머리 위로 칼을 번쩍 들어 올렸다. 혼비백산한 청년들은 전시관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한 명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다른 한 명은 오던 방향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박물관 전시도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나는 근대 전시관쪽으로 갔다. 식민지 시대를 거쳤던 시기의 전시물들이 매우 흥미로웠다. 덴마크는 한때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식민지 운영국이었다고 한다. 그린랜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이슬란드, 아시아, 유럽 등지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데, 전시물 중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던 당시의 노예 모형들이 있었다. 퐁퐁 묶인 채 노예선에 실려 온 노예들의 진흙 토기 모형들은 배의 밑창을 연상시키는 네모난 유리 박스 안에 차곡차곡 놓여져 있었다. 거칠고 단순한 모형들이지만 그 상징하는 바는 잔인하고 끔찍했다. 노예 모형들을 내려다보는 내내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 지상 낙원같은 복지국가의 어두운 역사 뒤면을 발견한 것 같은 마음일까. 전시물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식민지를 운영하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끼친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한 위앙스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진실된 반성보다는 그저 정치적 올바름을 실행하기 위한 발언 같이 느껴졌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던 강대국들 중 과연 어떤 나라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18세기 전시관 중에는 수집 캐비닛들이 매우 재미있었다. 당시 귀족사회에서는 자연에서 무언가 수집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조개껍질과 암석 등 갖가지 수집물을 유리 캐비닛에 가지런히 전시해 자랑했다고 한다. 수집물을 가득 전시한 우아한 캐비닛들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었다. 그토록 많고 다양하게 수집해 전시한 컬렉션을 처음 보는지라 예쁘기도 하고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때 R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와 헤어져 이제 온다고 한다. 티볼리 가든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iTalk Wireless & Repair
핸드폰 수리

- IPHONE
- IPAD
- LG
- SAMSUNG
- MOTOROLA
- TABLET
- COMPUTER

\$20 무제한 통화, 문자, 한국전화 (2GB, LTE)

562.246.2446 (문자 가능)
11421 Carson St. #G, Lakewood, CA 90715

HAIR BY KAY
Grand Opening Special

- *시니어 특별 할인가 (펌 + 컷 \$50)
- *매직스트레이트 30% OFF

- 헤어컷
- 펌
- 염색
- 스타일링
- 두피케어

친절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Mon~Sat 9am~7pm
예약해 주세요(주일은 쉽니다)
310.502.9985 12513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

Rx 꿀약국 Honey Pharmacy

아직도 기다리시나요?
대상포진 예방주사(Shingrix) 맞으러 **꿀약국**(Honey Pharmacy)으로 오세요!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카카오톡 상담 환영
TALK Honeyrx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안젤라 권 / 약학박사 로렌 민

Tel: 562.403.2332 메디케어, PPO, HMO 받습니다
Fax: 562.403.2331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Honeyrx123@gmail.com